



# 토끼풀

(학명 : *Trifolium repens*, 콩과)



토끼풀은 콩과식물 다년초로 유럽원산으로 목초로 재배하기도 하나 전국적으로 야생화되어 있다. 식물 전체에 털이 없고 밑부분에서 갈라진 가지가 옆으로 기면서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잎은 호생하며 엽병이 길고, 소엽은 세 개이며 도란형 또는 도심장형이며 원두 또는 요두(凹頭)이며 예저이고 엽병이 없다. 소엽의 길이는 15~25mm, 나비 10~25mm로서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탁엽은 난상피침형으로서 끝이 뾰족하다. 두상화서에 많은 꽃이 산형(傘形)으로 달리며 화경은 길이 20~30cm이고 꽃은 6~7월에 피지만 영양상태가 좋으면 8월에도 핀다. 꽃은 백색이고 길이 9mm 정도이고 기관(旗瓣)이 떨어지지 않고 갈색으로 말라서 열매를 둘러싼다. 꼬투리는 선형이고 4~6개의 종자가 들어있다.

토끼가 이 풀의 잎을 잘 먹으므로 '토끼가 잘 먹는 풀'이라는 뜻으로 '토끼풀'이라고 불리는데 아주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영어로는 clover 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토끼풀과 함께 클로버로도 통한다. 학명에서 *Trifolium*은 소엽이 세 개라는 뜻인데, 같은 콩과식물인 싸리속도 소엽이 세 개씩이다. 나폴레옹이 전투중에 네 잎이 달린 클로버를 발견하여 그 풀을 자세히 보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총알이 지나갔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총알을 맞을 뻔하였다고 하여 네잎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한다. 네잎클로버는 돌연변이의 일종일 것인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면 대량 재배를 하거나 화분에 심어 상품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토끼풀은 좋은 밀원식물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꿀의 품질도 최상품으로 구미의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 빵에 발라먹을 수 있게 클로버 꿀이 작은 팩에 담겨 제공된다. 다른 꿀도 두 가지 정도 함께 제공된다.

우리가 흔히 보는 토끼풀은 흰 꽃이 피지만, 그래서 '화이트 클로버(White clover)'라고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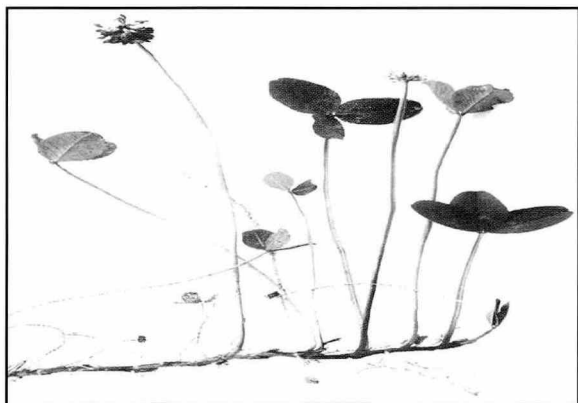
토끼풀 개화전경.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꽃이 피며 꿀벌도 계속 온다.

리지만, 레드 클로버(red clover)도 있다. 꽃의 색이 붉으며 화이트 클로버보다 초세도 강하고 꽃도 조금 더 크다. 크림슨 클로버(crimson clover)도 있는데, 이름으로 보면 아마도 꽃의 색이 진홍색일 듯하다. 모두 좋은 밀원으로 알려져 있다.

콩과식물이니까 질소비료를 스스로 합성한다. 따라서 척박한 토양에서 다른 식물들을 이긴다. 양봉인들에게는 반가운 식물이지만, 잔디밭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골치아픈 식물이다. 해마다 몇 번씩 캐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끼풀은 다년생초본이고 줄기에서 바로 뿌리가 나오고 잎이 잔디보다 넓으므로 잔디에게 이긴다. 키도 잔디보다 조금 크다. 양봉을 하는 사람으로서, 토끼풀을 캐내려고 애쓸 필요없이 잔디밭대신에 토끼풀밭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976년에 뉴질랜드에 유학하며 수(수십?)만평의 토끼풀밭을 보았다. 그 밭은 목초를 생산하기 위한 밭으로 자동으로 굴러가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며, 그 풀을 잘라 건조 압축하여직경 1cm 정도의 납작한 원형 가축 사료로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에는 양봉에 관해 별 관심이 없어서 별통을 본 기억이 없지만 어디엔가 별통도 있었을 것이다.

토끼풀의 번식은 매우 쉽다. 토끼풀을 한 삽 떠서 공지에 심으면 일년에 4배 정도 번진다. 썩이나 바람이 등 경쟁식물을 일년에 두어번 뽑아주고, 비료라도 조금 주면 더욱 빨리 번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만평에 토끼풀을 재배하기는 어렵겠지만, 양봉장 주변 공지에 몇 삽 심어주고 조금만 관리를 해 주면 꿀벌의 여름 기본식량으로 귀중하게 쓰일 것이다.



토끼풀 줄기, 잎, 꽃. 줄기에서 바로 뿌리가 나오므로 번식이 쉽다. 소엽은 대부분 세개씩이나, 간혹 네 개인 것이 있다. 소위 '행운의 네 잎 클로버'이다. 왼쪽 꽃은 꽃이 갈색으로 진 것이고, 오른쪽이 백색으로 피어있는 꽃이다.



레드 클로버(red clover). 보통의 화이트 클로버보다 초세도 강하고 꽃도 조금 더 크다.



이식한 토끼풀. 조금만 돌보아주면 한 해에 4배 정도 번식한다. 잔디밭을 아예 토끼풀밭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양봉인의 소박한 소망인가? 문외한의 무지한 발상인가?